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혁신교육 추진

도교육청,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 개최...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기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9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2019 혁신학교 운영학교 136교 교장·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 420명을 대상으로 혁신교육 기본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내용은 변화된 혁신교육 주요 정책 소개와 2019 혁신학교 지원계획, 함께 만드는 우리학교 지원 계획, 혁신교육특구 지원계획, 혁신·학교(광역거점형, 혁신·학교) 설명회 시간으로 이어졌다.

도교육청은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일상적인 혁신의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전북형

혁신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혁신정책의 실천을 우선하는 학교로 혁신학교, 혁신·학교(지역거점형, 광역거점형)로 구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혁신학교는 128개교로 특수 1교, 초 79교, 중 33교, 고 15교이며 지역거점형 혁신·학교는 초 5교, 중 2교, 고 1교로 모두 8개교이다. 광역거점형 혁신·학교는 2019년에는 운영하지 않고 준비학교를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과정 실천 중심으로 운영된다. 혁신학교는 '학교문화 형성'에서 '교육과정 실천' 중심으로 운영되

킨다. 이에 따라 내실화를 통한 학생 중심의 교육생태 지원과 학생 개인 존엄과 성장을 보조하는 학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또한 '배움과 성장의 날'을 강화한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운영해 학교 구성원간의 교육철학을 공유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나눔 문화를 정착시켜 함께 만드는 혁신교육을 확산할 방침이다.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 교육지원청,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와 교육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중심 교육생태계를 구현하고 학

신교육특구, 농어촌교육특구, 방과후 마을학교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혁신교육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정책 실현을 위해 혁신교육 연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실천하는 혁신 리더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혁신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며 학교 구성원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기반으로 협력과 소통의 학교 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협력을 통해 지역인재를 키워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나아가 전북의 유망인구를 늘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학업 어려움을 해소 위해 학생 간 멘토링 프로그램인 '스터디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학부모와 함께 행복한 교육공동체 만든다

도교육청, 학부모교육 계획 확정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2019 학부모교육 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학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이해와 공감능력을 높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활성화 및 단위 학교자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학부모교육 진행하고 있다.

올해 학부모교육은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비

전으로 학부모 역량강화, 학부모 재능 기부 활성화,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등 3개 분야에서 17개 세부교육이 진행된다. 우선 학부모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학부모회 임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 리더교육을 비롯해 일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성장 달빛학교, 경제교육, 법률상식 교육 등이 준비돼 있다.

특히 지난해 만족도 100%를 기록한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시집 쓰기', '흔들' 사각사각 다담돌, 나만의 책 만들기 프로젝트 '그림동화' 등의 강

좌는 올해도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학부모 재능기부 활성화 분야에서는 놀이밥과, 동화연극 자원활동가 교육, 책도민 마중물생 교육, 생활 속 사이언스만 교육, 학습친구 얼마쯤 자원활동가 교육 등 5개 강좌가 진행된다.

또 혁신교육 공감대 확산 분야에서는 놀이밥 60+이해교육, 생명감수성 교육,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만들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인성교육, 자녀 이해 교육 등이 학부모들을 기다린다. 여가다 올해부터는 지역별 학부모교

육이 강화된다. 14개 지역교육청에 예산을 편성,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권역별 학부모협의회,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학부모가 학교구성원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학부모교육은 3~12월까지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홈페이지(<http://parents.jbe.go.kr/main/main.jbe>)를 통해 교육별로 참가신청을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일거양득의 생산적 프로그램으로 각광

전북대, 한국-외국 학생 매칭 '스터디 어시스턴트' 호평 참여 학생 평균 성적 향상·유학생 중도 탈락 감소

전북대학교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추진위원장 윤명숙)이 외국인 학생들이 겪는 학업 어려움을 해소 위해 학생 간 멘토링 프로그램인 '스터디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을 진행, 호평을 받고 있다.

2017년부터 매 학기 진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과 외국 학생을 전공별로 나눠 2대 2로 그룹 매칭해 한 학기 동안 유학생의 전공과목 학습 및 한국어 능력 향상 등 스터디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학기에는 한국 학생 40명, 외국인 유학생 40명 등 80명이 참여했으며, 전공과목 위주로 최소 주 2시간 이상 학습 시간을 가졌다. 매 주 스터디를 함께 한 학생들은 실제로 한 학기를 보내면서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참여 학생 가운데 총 31명(외국인 유학생 17명, 한국인 학생 14명)의 학생들이 작전 학기 대비 평균성적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직전학기 학사경고를 받은 3명의 외국인 유학생 또한 성적이 향상, 제적을 모면하게 되어 외국인 유학생의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감축에 이 제도가 큰 실효를 거두고 있다.

성적최고학생자로 선발된 주위 학생(중국·철학과 3년)은 "지난 3개월은 나에게 단순한 학습 활동이 아니라 우리 그룹 4명의 학생

이 함께 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학습한 덕분에 성적도 많이 향상되어 전공 공부에 자신감도 생겼고, 최종 평가에서도 우리 그룹이 2위를 차지해 이번 학기는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와 함께 10명의 유학생들은 한국어 및 외국어 언어능력자격 향상을 비롯해 산림기사 등의 자격증 취득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

또한 한국 학생들 역시 외국어 뿐 아니라 여러 나라의 문화 등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며 한국과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단은 최근 2018학년도 2학기 프로그램 종료 후 최종 평가를 통해 활동 우수 3개팀과 성적 향상 우수 2명 학생(외국인유학생 1명, 한국학생 1명)을 선정,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우수 활동에 대해 격려했다.

윤명숙 사업추진위원장(국제협력본부장)은 "한국-외국학생 매칭 프로그램은 한국학생의 국제화와 학업능력향상 그리고 외국학생의 한국적응 및 학업능력향상이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가져 오는 매우 생산적인 프로그램"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터키에 글로벌 산학협력 거점센터 설치

해외 취업·유럽 진출 지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전주대학교 LINC+사업단(주승 단장)은 최근 (사)세계한인무역협회(World OKTA/이하 월드옥타) 이스탄불 지회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전주대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인 '해치 이스탄불(HATCH ISTANBUL)'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스탄불 크라운플라자호텔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월드옥타 이스탄불 정지섭 지회장, 민주평통 자문 위원 김영훈 회장, 전주대 LINC+사업단 이광재 교수 및 각 기관 관계자와 전주대 학생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국회의원의 축하 메시지가 영상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전주대는 지난해 '해치 런던'을 설치한 후 유럽에 두 번째로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를 설치했다. 터키는 동부 유럽에 위치한 국가로 아시

아와 유럽을 잇는 전진기지로써 그 의미를 더했다.

'HATCH 글로벌 산학협력거점센터'는 전주대 학생의 해외 취·창업 및 가족기업의 유럽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LINC+사업단과 월드옥타 유럽지회의 협약을 체결을 근거로 설치된 조직이다.

전주대-월드옥타 이스탄불 지회의 첫 행사로 전주대 학생 12명이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월드옥타 이스탄불 지회 주관 무어스쿨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터키의 경제와 무역실무 등을 배우고, 터키 학생들과의 문화교류 및 행사도 가지며 유럽의 실황을 몸소 체험했다.

전주대 이호인 총장은 "전북이 가진 한국 전문문화기반 콘텐츠는 유럽 시장 진출에 매우 유리하다"라며,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럽에 진출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역의 상품을 유럽에 소개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HK+연구단, 스키하시 다카오 교수 초청 강연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단장 변주승)은 지난 28일 한지산업관에서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동양문자문화연구소장 스키하시 다카오(杉本隆夫)교수를 초청하여 '시라카와 문화'를 주제로 초대-한자로 보는 동양의 역사문화'라는 주제로 제2회 국외전문가 초청강연을 열었다.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동양문자문화연구소는 한·중·일과 베트남을 아우르는 한자 문화권의 공통된 문자학을 연구한 고(故) 시라카와 시즈카(白川靜) 교수를 기념하여 설립된 연구소다.

이날 스키하시 소장은 고(故) 시라카와 교수의 업적과 동양문자연구소를 소개하며, 한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故) 시라카와 교수는 한자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은나라 시대 갑골문자 연구와 일본 한자교육의 기반을 닦는데 공헌한 연구자로 한자학 최고 권위자다. /장은성 기자

일본 리츠메이칸 동양문자연구소는 시라카와 교수의 업적을 계승하여 현대 한자교육을 위한 교육자 양성, 한자교육 교과서와 교육과정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한자의 원류인 갑골문자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와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 동양문자문화연구소는 한·중·일 공통의 문자인 한자문화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는 2011년에 설립되어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등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2018년에는 인문학국플러스(HK+)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근현대 유교문화 비평적으로 성찰하여 대안적 미래 공동체를 모색하는데 주목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